Class of 2021

COMMENCEMENT

World Mission University

Saturday, June 5, 2021 | at 1:00 pm | World Mission University

CONTENTS

“불확실한 시대에 희망의 밝은 빛을 …”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106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30회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모든 졸업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분 한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처음으로 간호학과 (RN to BSN)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백의의 천사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라틴 형제 자매들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와 온라인에서 학업을 잘 마치고 세계 전역에서 헌신할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COVID-19 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위축되고 그 영향이 개인의 삶 전반에까지 미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신앙생활과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이 신앙에 대한 관심을 저조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불확실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자신의 사역에서 인정받는 존재로 세움 받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본교를 졸업한 후 “사역현장에서 탁월한 사역자”로 우뚝 서는 교육 목표를 일구어 내고자 합니다.

어려움은 좌절의 시기이지만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더욱 내실을 다지면서 전폭적인 개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인물들을 영성과 인성 및 사역역량을 훌륭하게 갖춘 탁월한 사역자로 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7-8)

"축하합니다"

총 106명

대학 (46명)

학위	수여자
AACC (8명)	Claudia Paredes, Dora Rebeca Hernandez, Candido Hernandez, Debora Guix, Rodolfo Zavala, Georgina Escobedo, Katusha Sivirich Heredia, Sandra E Menjivar A
AACM (9명)	Javier Velazquez, Elizabeth Diana Lecca, Eugenia Tamayo, Juan Luis Heredia, Yanira E Marroquin, Manuel Marcelo Chaj, Alan Christopher Ramirez, Norma Munoz, Luis Alfonso Lopez Mejia
BACM (1명)	박소피(희정)
BACC (9명)	William A Arbelaez, Carmen Liseth Choguix Lopez, Thirza Linan, Liliana Tong 김세리, 김인자, 박사라, 박종수, 한추순
BSN (18명)	고애순, 김성아, 김영희, 김정아, 김지혜, 김창의, 박소피아(윤희), 박유정, 방금희, 서미숙, 신희자, 오최미경, 유명옥, 임동림, 정경조앤, 정경주, 조영란, 최성실
BABS (1명)	Teresa Villamizar-Lopez

대학원 (60명)

학위	수여자
MACP (22명)	강유리, 공효정, 구계자, 김기표, 김윤덕, 김윤성, 김정원, 김태훈, 문성희, 박정은, 서미란, 성명현, 송영숙, 안진은, 위해옥, 은두남, 이선용, 이애옥, 이혜선, 이혜자, 정진숙, 허은희
MAM (5명)	김동림, 김부연, 김지선, 양설아, 하지인
MAT (4명)	방동철, 이은종, 한미정, 한정은
MDiv (14명)	김남웅, 김명신, 김영철, 김종완, 문성일, 박재욱, 유지만, 이보경, 장경순, 진미예, 최비키, 최우영, 홍영준, 황정석
DCM (5명)	김경희, 박은향, 임현정, 정미영, 최미화
DMin (10명)	권남혁, 김학송, 문명상, 문현식, 박균부, 박용수, 송원석, 이상천, 장인호, 최상영

2021년도 학위수여식
30 th Annual Commencement

2021년 6월 5일 (토), 오후 1시

인도(Presider): 신선묵 부총장

입장	(Opening Procession)	다같이
개회선언	(Opening Announcement)	인도자
기도	(Prayer)	최윤정 교수
학사보고	(Academic Report)	인도자
학위수여	(Conferring of Degrees)	총장, 부총장, 이사
	[Degrees Granted:AACC, AACM, BACC, BACM, BAM, MACP, MAM, MAT, MDiv, DCM, DMin.]	
축가	(Congratulatory Song)	최원현 학우
총장메시지	(President's Address)	임성진 총장
졸업생답사	(Graduate's Response)	한미정 학우
헌신의기도	(Litany of Dedication)	다같이

이제 학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소서.

진정 우리들이 교회와 세상을 위해 말씀 중심과 선교 중심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졸업생들이 이제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저들의 생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아버지의 충성스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저들에게 용기와 지혜, 믿음과 겸손, 온유와 따뜻한 마음을 풍성히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졸업생과 또 졸업생을 보내는 재학생과 교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오늘 졸업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교가제창	(School Anthem)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Luís Morales 교수
퇴장	(Recessional)	다같이

학위수여 대상자 명단

AACC: Claudia Paredes, Dora Rebeca Hernandez, Candido Hernandez, Debora Guix, Rodolfo Zavala, Georgina Escobedo, Katusha Sivirich Heredia, Sandra E Menjivar A (8)

AACM: Javier Velazquez, Elizabeth Diana Lecca, Eugenia Tamayo, Juan Luis Heredia, Yanira E Marroquin, Manuel Marcelo Chaj, Alan Christopher Ramirez, Norma Munoz, Luis Alfonso Lopez Mejia (9)

BACC: William A Arbelaez, Carmen Liseth Choguix Lopez, Thirza Linan, Liliana Tong
김세리, 김인자, 박사라, 박종수, 한추순 (9)

BACM: 박소피(희정), BABS: Teresa Villamizar-Lopez (2)

BSN: 고애순, 김성아, 김영희, 김정아, 김지혜, 김창의, 박소피아(윤희), 박유정, 방금희, 서미숙, 신희자, 오최미경, 유명옥, 임동림, 정경조앤, 정경주, 조영란, 최성실 (18) 대학(46명)

MACP: 강유리, 공효정, 구계자, 김기표, 김윤덕, 김윤성, 김정원, 김태훈, 문성희, 박정은, 서미란, 성명현, 송영숙, 안진은, 위해옥, 은두남, 이선용, 이애옥, 이혜선, 이혜자, 정진숙, 허은희 (22)

MAM: 김동림, 김부연, 김지선, 양설아, 하지인 (5)

MAT: 방동철, 이은종, 한미정, 한정은 (4)

MDiv: 김남웅, 김명신, 김영철, 김종완, 문성일, 박재욱, 유지만, 이보경, 장경순, 진미예, 최비키, 최우영, 홍영준, 황정석 (14)

DCM: 김경희, 박은향, 임현정, 정미영, 최미화 (5)

DMin: 권남혁, 김학송, 문명상, 문현식, 박균부, 박용수, 송원석, 이상천, 장인호, 최상영(10) 대학원 (60명)

총 106명

수상자 명단

총 장 상: 김남웅, 한미정
부총장상: 구계자, 이혜선
이사장상: 박소피아, 김지선
총회장상: 최비키
ABHE상: 박사라, 한추순
동문회장상: 김명신
교 수 상: 안진은, 서미란, 진미예, 박유정, 정경조앤, William A Arbelaez, Thirza P Linan

졸업생 현황

과정	AACC	AACM	BACC	BACM	BAM	BSN	MACP	MAM	MAT	MDiv	DCM	DMin	Total
2021	8	9	9	2	0	22	5	4	14	5	5	10	106
총계	16	34	84	349	30	22	107	79	84	378	8	25	1308

광고

1. 2021년 제 30회 학위수여식을 (Virtual Commencement)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과 그 가족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 본교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동양선교교회, 후원자, 이사진, 동문회, 그리고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일어나 빛을 발하라 "

한미정 (MAT)
졸업생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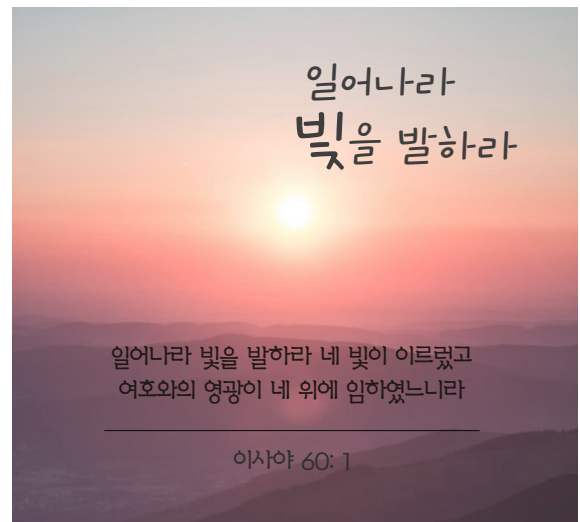
인생의 여러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학교와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짐을 믿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알아오던 월드미션대학교에서 2021학년도 제 30회 졸업생이 되는 인연으로 인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이셨음을 인정합니다. "내외적인 급속한 변화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학교의 설립 정신인 기독교 정신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육공동체로 발전하고자" 힘써 오신 본교를 모교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COVID19 팬대믹 상황에서도, 사전에 잘 구비해 오신 온라인 학업장을 통하여 흔들림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총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과 모든 교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서 모여 온 학우님들과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며, 함께 신학을 정립하고 또 신학을 살아낼 실천적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학업의 동기나 환경, 그리고 배움을 실천해야 할 삶의 현장은 각각 다를지라도, 저희는 이제 공통의 DNA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 소중한 DNA는 이제 저희 각자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목회, 선교, 음악, 예배, 상담, 간호, 비지니스 등 사역과 삶의 전영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전에서 선교적 삶을 온전히 담당하는 목회자요 선교사, 또 교회음악사역자, 목회상담가, 간호사, 평신도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며 과제임을 느낍니다.그러하기에 이제 저희는, 저희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 저희를 보내시는 주님만을 스승삼고 더 높은 차원의 배움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곳추세워 나 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선교사의 자세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 받은 한 사람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 뒤에서 기도로 엄호해 주실 모교의 교수님들과 재학생 학우님들과도 그 승전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졸업하는 저희들과 재학생 후배님들과 모교의 앞날에 응하기를 기도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며, 복음의 영향력이 상실되어 가는 세상에서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며, 균형과 분별의 자세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으로 품는 선교사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저희의 배움도, 또한 저희의 삶도 모두 값어치 있게 계수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으며, 그 영광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 환경을 뛰어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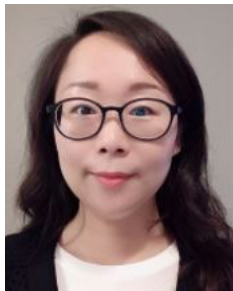
박소피아 (BSN)
졸업생

제가 근무하는Olive View-UCLA Medical Center 는 San Fernando Valley & Antelope Valleys 지역의 일차 진료와 입원치료 그리고 수술 등 특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2019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회 집사님의 자녀를 돕는 과정에서 우연히 RN to BSN Program 이 World Mission University에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해 가을 학교에 입학하여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대학 입학 이후 긴 세월이 지나 다시 공부에 도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많은 용기와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함께한 모든 학우들도 가정에서는 한 남편의 아내로 또한 자녀들의 어머니로 직장에서는 가까이서 환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환자들을 섬기는 간호사로 이렇게 일인 이역 삼 역을 감당하며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World Mission University 에 2019년처음 RN to BSN (Bachelor Science of Nursing) 과정에 입학하여 졸업을 앞둔2021년 까지의 길고 짧은 과정을 뒤돌아 볼 때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설레는 마음과 기대 그리고 각오로 캠퍼스 교실에 모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 깨닫음과 성취감으로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인 병원의 수술실, 중환자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Home Health, Hospice Care, Hemodialysis clinic, Surgery Clinic, Nursing home 등에서 서로 각자 다양한 경험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힘든 순간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한 18명의 학우들 각자 삶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낙상으로 인한 사고로 4개월 가까운 어려운 시기를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학교의 배려와 주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공부를 끝까지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여러 학우들이 교통 사고나 건강상의 여러 문제로 응급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병원으로부터 직장을 잃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COVID-19 Pandemic기간에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Zoom Meeting을 통해 비대면 수업으로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 학기와 3 여름 겨울방학을 거치며 채플과 전공인 간호학 뿐이니라 다양한 교양과목을 통해 영적인 전인 간호사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전 삶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키시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각오와 공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음으로 환경적인 제한과 개인적인 문제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간호학과 학우님 모두 기쁨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그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의 삶을 경험케 하시고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심처럼 우리 모두를 각자의 어려운 형편과 과거에도 없었던 환경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BSN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의 어려움 가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신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간호학 지식뿐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많은 성경적 지식과 채플 시간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셨고 과학적 지식을 겸비한 BSN간호사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과 커뮤니티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통해 상담 심리학(M.A.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많은 간호사들이 마음의 상처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인간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병상을 지키며 소임을 다하는 나이팅게일의 후배들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모든 학우님들에게 “사역 현장에서 탁월한 WMU People이 되자!” 올해 학교 표어처럼 가정과 커뮤니티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등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졸업을 축하드리며.. "

김민지 교수
Director of BA in Christian Counseling Program

월드미션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모든 순간 모든 곳에 살아계시며 또 저희에게 생명주시고 살리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결실이 있기까지 졸업생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상치 못한 COVID-19을 만나 어려운 가운데 학업을 마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최악인 것 처럼 보였던 상황들도 모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고 깨닫게되는 때가 있었던 것처럼 광대한 주님의 생각과 세계를 다 알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방법이셨으리라 믿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푸른 활력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대학에서의 시간이 역량을 축적하는 준비 과정이었다면, 대학 밖의 사회는 이를 펼치고 실현하는 무대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나만의 유익함이 아닌 또는 부나 명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세속에서도 역사적으로 학문, 발명, 사업 등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보면 사람을 알고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의 목적은 더욱 우리가 속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함이 되어야 겠습니다.

또한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변화시키십시오. 총장님께서 강조하시 듯, "월드미션대학교는 성경적 교육을 통해 변화 받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공동체 입니다." 성경 말씀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은혜로운 만큼의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 있다는 뜻이 있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시작을 함에 있어 미래가 있기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에서든 일상에서든 여러분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나음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주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아가 저희 학교 설립자 임동선 박사님께서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세계선교의 핵심적 전략으로써 월드미션대학교를 세우셨듯 지역사회에서 혹은 지구촌에서 헌신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여려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생황에도 내게 능력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한 끈기로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군”

김서영 교수
Assistant Professor of Research and Writing

다사다난했던 한 해,
2020년을 지내고 2021년 졸업을 앞둔 학우님들 축하드립니다.

전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다시 한 번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두 앞다투어 달려가고 있던 상황에서 누군가의 ‘모두, 그 자리에 멈춰!’하는 큰 소리에 놀라 제자리에 서버린 모습, 그리고 이 팬더믹에 맞닥트린 우리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하고, 친한 사람일 수록 만나기를 피하고, 만나서도 멀리 떨어져 소리를 질러 안부를 묻는 이상한 관계맺기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또는 일해오던 비지니스가 문을 닫은 곳도 있고, 매일 바쁘게 아이들을 학교에 또는 유치원에 보내고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던 일상에서 둘 중 한 사람이 집에서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도하며 돌봐야 하는 상황, 방마다 공간마다 컴퓨터를 끼고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정, 양로원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못 본채 전화 너머의 목소리만 들어야 하는 현실, 교회 문을 닫은채 목회자 가정에서 설교 영상을 제작하거나 교회 본당에서 청중 없이 설교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교회들, 학교도 문을 닫고 줌으로 아니면 녹화한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식당마다 실내에 의자와 테이블을 밀쳐둔 채로 야외의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 저마다 겪어보지 못 한 1년을 보냈습니다.

이 1년 사이에 이 많은 변화에 적응하며, 누군가는 우울해 하고 고통스러워 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런 ‘이상한 한적함’을 오랫만에 누리고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한 편으로는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접어야 하는 고통을 견디며,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모험을 동시에 해 내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강제 휴식의 시간에 못다 한 학업에 매진해서 하나의 과정에 매듭을 지으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세상으로 부터 본인의 실존을 분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아를 세워가기를 힘쓰는 분들이십니다. 이것은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영원 가운데 내가 이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지혜, 기술, 태도를 얻기 위해 땀을 흘리며 헌신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귀한 것에 그에 맞는 댓가가 지불되기 마련인데, 그런 댓가를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치루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이미 처절하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학업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마치기까지의 과정도 ‘우리’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우리 안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도움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열망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 기술과 태도는 이제 우리를 통해 맺혀진 값진 열매입니다.

이 ‘값진 열매’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로워진 시대에 맞게 잘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평등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은 ‘불평등 타파’를 외치는 이 세대를 위해 누구보다 준비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어놓은 우리 졸업생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복음의 불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 곡선으로 직선을 그리라 ”

남종성 교수
Dean of Undergraduate Education

정호승 시인이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해 봅니다. 시는 때때로 우리 마음이 되어 우리를 대변해 줍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 사람을 사랑 하지 않는다 /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 된 사람을 사랑한다 /....../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한 방울 눈물 이 / 된 사람을 사랑한다....../

이 시는 아픔과 눈물의 소중함을 노래한 시입니다. 인생의 양지, 환희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음지, 슬픔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사랑입니다. 그늘을 아는 사람이 큰 나무가 되어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곡선으로 직선을 그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늘과 눈물의 굴곡진 생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행해 가는 삶이 귀합니다. 그늘 없이, 슬픔 없이 직선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안식이 되어 주지 못합니다.

곡선적인 삶은 시냇물과 같은 삶입니다. 시냇물은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목말라하는 나무들에게 뿌리를 적셔줍니다. 꽃들에게 생기를 주고, 보답으로 향기와 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깊음을 체험합니다. 시냇물이 곡선으로 직선을 그린 것입니다.

홍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달려갑니다. 장애물을 모두 부수어 버립니다. 나무도 뽑아버리고, 집도 날려버리고, 자동차도 찌그러뜨립니다. 전봇대도 전기 줄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앞길에 장애물은 사정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말도 직선적으로 하는 것이 시원해 보이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곡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할 내용이 있지만 사랑에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검일수록 칼집에 넣어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곡선으로 직선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코비드 19로 어려운 시대에 현장으로 부름을 받아 안스럽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늘까지도, 눈물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그늘이 되어, 눈물이 되어 다른 사람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 COVID 를 지나면서 상담실에서의 단상”

송경화 교수
Director of MA in Counseling Psychology

어느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 모든 일상을 뒤흔들어 버린 COVID 상황은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집에 갇히게 되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상실했다. 생일이나 졸업식처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어졌다.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마치 냄비에서 끓어 넘치는 물처럼 우울과 불안, 분노와 폭력이 부글부글 끓게 되었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었다.

올 1월에 온라인으로 준비하여 새롭게 재오픈한 학교 부설 상담소에서는 이런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상담 신청이 밀려들어왔다. 온라인 방식의 상담이 낯설지만, 우리 실습생들은 너무도 성실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담자 한사람 한사람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COVID 이전에도 상담은 절실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타락했고, 비록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공존하며 끝없는 영적 싸움 속에 살고 있다. 한계를 지난 죄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사는 게 인생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며 그런 죄악이 당연히 여겨지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아프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다. 병이 들고 황폐해진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 사역은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매우 절실한 사명이다.

COVID는 이런 상담의 필요를 하늘로 치솟게 했다. 그리고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런 시대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온라인 방식의 상담을 학교 커리큘럼인 상담실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훈련시키고, 부설 상담소를 통해 귀한 상담 사역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COVID 는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과 상실을 초래했지만,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전에는 제한된 상담실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만 상담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에게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기독교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상담을 배우는 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상담으로만 스스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상담 방식이 이 영역에서의 뉴 노멀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상담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강해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상담이란 그런 도울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비록 나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상담이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상담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모든 동문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이 상담의 사역을 쉬지 않고 이어 나가기를 소망해 본다. 해가 갈수록 세상으로 파송된 우리 동문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오래지 않아 지구촌 곳곳에서 월드미션인들의 귀한 사역으로 많은 영혼들이 쉼과 회복, 치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을 그려 본다.

“ 소망의 메신저 ”

신선묵 교수
Vice President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친구가 올려준 글이 하나 있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원중에 하나에 관한 소식이었는데 입학 지원생 수가 몇 년 전부터 미달이 되고 줄어들더니 올해는 거의 정원의 반 조금 넘는 숫자가 지원을 했다는 기사였다.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 교회에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설상가상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코로나 사태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큰 타격을 미쳤지만 특별히 기독교회에 큰 타격을 미친 것 같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보다는 이기적이고 세상과 단절된 부정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약해지고 아마도 교회 자체가 생존하지 못하고 없어지거나 통폐합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이민 교회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위기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이민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전망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항상 인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과 소망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부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항상 앞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었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절망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해야한다.

물론 우리가 거짓 희망 혹은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의 결여들은 나쁜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거짓 희망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였다. 거짓 소망은 우리를 더욱 절망으로 이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다. 베트남 전쟁 때에 하노이 수용소에 갇혀 있던 미국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포로생활을 8년이나 견디고 돌아온 스톡데일 장군에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었는지 물었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바로 “낙관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죽었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면 나갈 수 있을 꺼야”하고 있다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면은 괜찮아지겠지” 이러다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낙담해서 자살하거나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다는 것이다. 반대로 죽지 않은 자들 대부분은 현실주의자들로 수용소를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비한 것이 그들의 생존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라고 스톡데일 장군이 말을 하였다. 거짓 희망은 우리를 더욱 절망으로 이끈다.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카로운 분석과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하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회복해야 한다. 막연한 기대는 해롭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을 둔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는 현실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눈의 초점을 마추고 소망해야 한다. 절망스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미래가 밝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밝은 전망을 가질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한다.

이제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졸업하고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의 메세지를 선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미래가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학우님들의 졸업이후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빈다.

“ 하나님의 청사진 ”

윤에스더 교수
Director of Doctor of Church Music Program

여러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업을 마무리하여 오늘을 맞이한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업의 과정을 뒤돌아보면 사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졸업이후의 삶과 사역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필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실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음악사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모챠르트는 신동으로 유명했지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가 하면 화성학의 기초를 쌓은 라모는 40이 되기까지 무명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음악의 아버지’로 유명한 J. S. Bach 는 살아생전에는 대중으로부터 존경과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새롭게 알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각자 삶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힘과 위로를 줍니다.

이들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서 각각 다른 계획과 목적으로 지음받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남을 낮추고 나를 높여야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맞이하는 졸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위취득에 힘입어 주신 은사로 더욱 다른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각자의 전공분야와 걸어갈 길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가지 목적, 나를 낮추고 죽어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수고의 결과인 졸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들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은 위하여 사용되는 복된 앞날이 되시기를 마음다해 응원하고 다시한번 축하합니다!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미래가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학우님들의 졸업이후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빈다.

“ 콘트라팍툼 (Contrafactum) ”

윤임상 교수
Director of MA in Music Program

트라팍툼 (Contrafactum)이라는 음악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세속적 가사를 사용해서 작곡되어진 멜로디를 교회 가사를 집어넣어 새롭게 교회음악으로 바뀌어진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것이 마틴 루터가 당시 독일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권주가로 사용한 멜로디를 차용해서 만든 소위 종교 개혁가 라고 불리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입니다. 또한 독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한스 레오 하슬러 (1564-1612)가 원래 세속적 사랑의 노래로 만든것을 를 디트리히 북스데후데 (1637-1707)나 요한 세베스찬 바흐(1685-1750) 에 의해 수난음악에 코랄로 사용하여 더 유명한 곡이 되어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난을 표현한 대표적인 찬송가 “오 거룩하신 주님” 또한 그것입니다.

콘트라팍툼 (Contrafactum). 원래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속적 이야기를 담아 만든 음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사를 바꾸어 표현하니 그 본질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영원히 죽을 수 수 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어 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긴터널을 지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두가지 원초적인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각인하고 각자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첫 째 예수님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야 이십니다. 초대 교회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던 1세대 크리스챤 저술가들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 사건을 보고 우주의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독교의 가설은 하나님이 창조된 우주로 내려 오셨고 인류에게 내려 오셨으며 다시 올라가셔서 자신과 함께 인류를 끌어올리셨다” 라고 C.S 루이스는 표현합니다.

요한 복음 1장 14절, 8장 58절을 참고해 보면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 부터 내가 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성인이라 말하는 여러 종교 창시자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렇게 말 할 수없었고, 또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히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요 14:6) 이야기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한 번 연상해 보시지요. 파리 한마리가 코끼리 등에 붙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하려고 열심히 눈을 돌려 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참 많이 우스꽝 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라는 질문 또한 우스꽝 스러운 일 일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를 심각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 시키려고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 41:10) 그렇기에, 예수! 그분은 우리의 메시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놀라운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가 아닌 분명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심각한 고민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첫수업의 기적 "

이영주 교수
Director of BSN in Nursing Program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1회 졸업생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자 라는 비젼을 가지고 2019년 설립된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의 첫번째 입학생, 첫번째 졸업생, 그리고 첫번째 간호학과 동문이 되신 18분 한분 한분께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것도 없는 유에서 무를 창조하신 주님 한분만을 믿고 간호학과를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보물을 만들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교과과정을 설립하고, 입학 규정을 정하고,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하루 하루가 새로운 것에 부딪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우리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하였고, 그렇기에 무사히 프로그램을 다같이 마칠 수 있었던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학업 중에 넘어져 다리를 다치고, 응급실로 실려가 수혈을 받기도 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학업을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까 하는 마음으로 한 때는 중도에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요. 피곤에 지친 몸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준비를 하고, 또 막막하기만 했던 지역사회 공중보건 실습..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으로 잘 해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고, 이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간호사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엄마이면서 아내로서 이 수많은 모든 역할들을 한몸에 지닌채 학업을 무사히 끝마치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호복을 입고, 두렵고, 피곤한 심신을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과 서로 격려해 가면서 항상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될까 스스로를 격리해 가면서… 마지막 결승점, 바로 지금 졸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곁에서 조력자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의 귀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2회, 3회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변화된 세상의 주역이 되어 한껏 그 역량을 펼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 배움을 실천하는 월드미션인을 꿈꾸며 "

이현아 교수
Director of BA in Social Work Program

올해 본교 월드미션대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졸업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은 흔들리고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심이라고 불릴만큼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상에 짓눌리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기회삼아 학업을 전진해 나갔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낸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에 금년 졸업은 누구보다도 의미있고 값진 결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도 학업에 전진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꽃은 피고 태양은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고통을 마주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고통과 마주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려움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월드미션대학교의 학위 과정은 결과로만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위과정 동안 전 세계에 수많은 학우들과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졸업이라는 마침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 학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꿔왔던 것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하며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비전을 꿈꾸셨습니까? 학업이 가져다 준 삶의 변화가 무엇이었나요? 그 변화를 토대로 한 단계 도약할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원대한 꿈과 비전을 그리며 이곳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학위를 시작한 즈음을 기억한다면 졸업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학업을 바탕삼아 새로운 도전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월드미션대학교가 함께 하고 응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월드미션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입니다. 특별히 세계 각지에서 학업하는 많은 후배들을 위해 기도로 힘써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런 후학들을 양성하며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동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잘 접목하여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간 이 어지러진 지역사회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며 화해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꾸어 가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비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배움의 과정을 실현해 나가실 때 아름다운 사람들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손을 잡아주며 이끌어 주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졸업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페리코레시스와 공동체적 삶 ”

동방 신학자 다마스쿠스의 요한(676-749)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재와 상호교제의 삶을 페리코레시스(περιχορησις)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페리코레시스는 상호침투와 상호내재를 의미하는 헬라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은 하나의 신적 인격이면서도 동시에 자신 안에 다른 신적 인격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대체할 수 없는 주체로서 위격들 사이의 구별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각각의 모든 신적 인격 속과 다른 인격들 속에 상호적으로 온전히 스며들고 침투하고 둘러싸여 존재하신다. 성자는 오직 성부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할 때만 성자가 되고 이러한 관계는 성부와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위일체의 위격은 이러한 페리코레시스적 교제 안에서 진정한 위격이 된다. 이것은 서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적 삶을 보여주는 존재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의 사랑과 연합의 관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적 삶인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의 삶은 모든 피조물들의 공동체적 삶의 원형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자취는 그 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페리코레시스의 원형을 이해할 때 인간은 공동체적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영위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삶의 방식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연합된 관계를 맺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끼리도 공동체적인 샬롬의 삶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공동체성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와 지구촌이라는 어휘가 무색하게 사회마다 인종간, 계층간, 문화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가족 공동체는 사랑의 근력을 잃고 주저앉고 있으며, 개인 역시 내면의 통합이 와해되어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 사회와 동떨어진 외딴섬으로 존재하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채 흔들거리고 있다. 이 시대의 위기는 공동체성의 상실이다. 희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적 삶의 원형을 발견하는 일이다. 공동체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샬롬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의 회복인 것이다.

이제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은 사랑의 관계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 나라의 일원으로서 기독교의 지평을 개인, 교회, 사회로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페리코레시스적인 삶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며 샬롬의 비전과 소명이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리스인의 자세”

히브리서12:1

임원숙 (MDiv)
2021년 설교페스티발 대상수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지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세상을 따라 살아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길을 개척한 사람이나 먼저 걸어갔던 경험자들이 생생한 증언을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길로 들어선 성도들을 위해 믿음장인 11장에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며 이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증인이 된 그들은 어떤 위협이나 핍박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경주하라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승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의 경주를 위해 먼저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2장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 육체의 정욕, 영적인 게으름, 불신앙 등과 같은 죄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옷을 입고 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벗어 버려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경주자의 자세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내는 ‘휘포모네(ὑπομονή)라는 헬라어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견디기 힘든 상황과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차원의 인내력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향해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1952년 미국의 여자 수영선수 플로렌스 채드윅(Florence Chadwick)은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35 킬로미터의 차가운 바다를 횡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15시간 이상 안개가 자욱한 바다의 거친 물살을 헤치며 헤엄을 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의 결심은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했지만 녹초가 된 나머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안전요원들이 그녀를 물 밖으로 꺼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가 걷히고 해안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도전을 멈춘 곳은 목표지점까지 1킬로미터도 채 남지 않은 지점이었고 그녀는“안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해안을 보았더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채드윅과 같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안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안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소리치는 안개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안개가 곧 걷히듯이 시련도 지나갈 것을 믿고 휘포모네의 자세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경주자들은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이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채드윅이 안개때문에 목적지를 보지 못해서 실패한 것처럼 경주자가 목표가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면 길을 잃거나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바라보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론테스(ἀφορῶντες)는 아포라오(ἀφοράω)의 현재 분사로 ‘주목하다’ 또는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분사의 현재형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므로
아포론테스는 계속 해서 주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목표점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나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앞서 가셨
고,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
도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안개같은 고통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죄의
옷을 벗어 버리고, 인내하며,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
서 주목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이 길의 끝에
서 마침내 승리를 얻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모두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월드미션의 학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충영 (MDiv)
학생회 회장 (2020- 2021)

30회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COVID 19상황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졸업하시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펜데믹으로 인해 직장이나 사업, 사역을 감당하며
가정을 돌보며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제물을 작성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공부 하느라 최선을 다 했어도
때로는 원치않은 결과로 인해 힘이 들 때,
공부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공부에 정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신 가족과
친구와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졸업이라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 시키자"는
월드미션 학교의 사명대로 세계를 보며 당당히 나아가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학업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졸업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 계신 여러분은 이제 학업의 과정의
매듭을 짓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졸업식은 축복의 자리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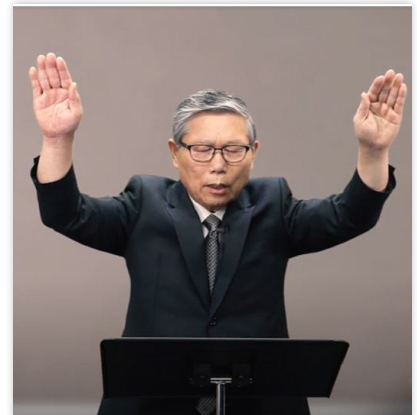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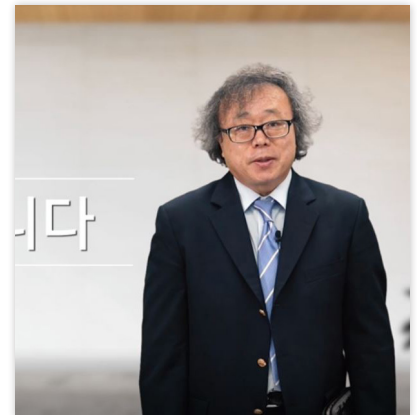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섬기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르치며 지키게 하며,
속사람을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 합니다!

WMU News

29th 학위수여식

지난해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2020 온라인 학위수여식 (Virtual Commencement)이 있었다.

가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0 가을학기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캠퍼스 환영회를 생략하고 각 부처의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신입생에게 배포하고 있다.

가을학기 온라인 개강예배

윤임상 학생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강 예배에서 허지애 학우(BAM)의 찬양인도 최원현 학우(MAM)의 특송이 있었으며 임성진 총장이 요한복음 13장4-7절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자"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이 날 교직원을 비롯 캠퍼스 프로그램 학생과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 프로그램 학생들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예배를 마쳤다.

설교축제

2020년 10월 9일 교내 설교 축제를 거행하였다.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경연대회였기에 온캠퍼스 뿐 아니라 온라인 학생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신선묵 부총장, 남종성 교수, 최윤정 교수가 각각 "소통, 석의와 해석, 청중에게 적절한 적용" 의 항목을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했다. 10월 12일 수상자 발표와 10월 15일 온라인 Zoom을 통해 윤임상 학생처장의 사회로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임성진 총장은 격려사에서 "설교라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재 해석해 주는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해 분명한 교훈이 무엇인지 알고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목적이 있는 설교가 되게 해 달라"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내는 귀한 설교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한다"고 격려하였다.

수상자는 장려상에 김종완(MDiv.) 강예원(BACC.OE) 학생, 우수상에 최우영(MDiv.OE) 학생, 최우수상에 김선경(MAM) 힉생, 그리고 대상에 김진호(MDiv.)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 각각 상장과 상품을 받았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김진호 학생은 오는 10월 24일 2020년 남가주 신학대학교 대항 설교 페스티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는 기회와 함께 이번 학기 11주차 학교 채플의 설교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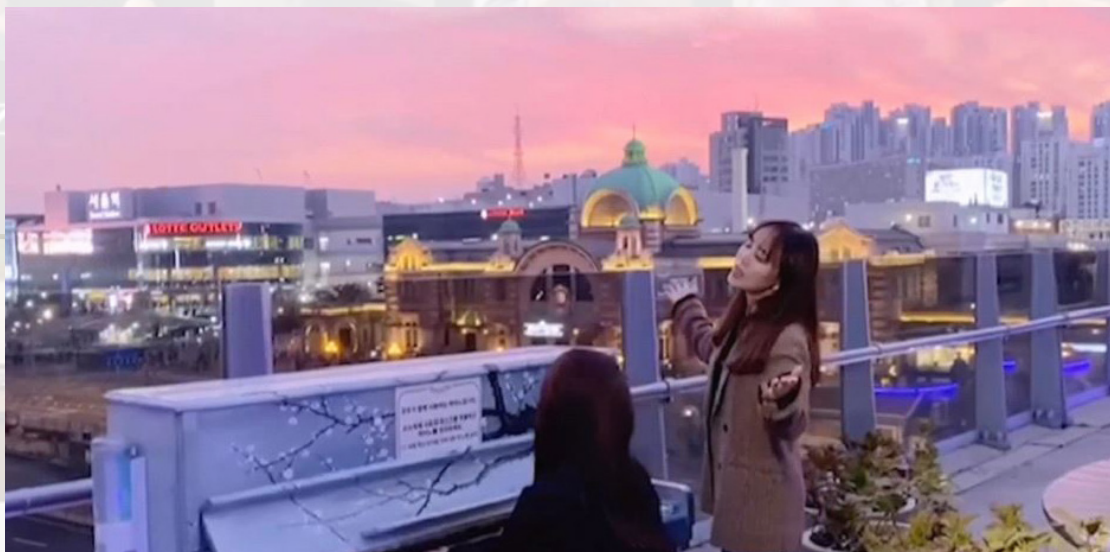
남가주 신학대학교 설교 페스티벌

2020년 월드미션대학교와 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제 5회 설교 페스티벌이 2020년10월24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이 날 본교 대표로 김진호 학우(MDiv)가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가을학기 학술세미나

2020년 10월 13일(화)에 온라인으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회장인 김준 교수가 "성경적 내적 치유 – 용서" 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인도했다. 많은 재학생들이 참가한 이 세미나에서 김준 교수는 용서의 성경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상담자로서 어떻게 용서의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에 관해 다루었다.

월드미션의 밤

2020 월드미션의 밤이 11월24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재학생, 동문, 교수, 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연합과 감사가 주제인 이번 행사에서 프로그램, 클래스, 개인별로 영상을 출품하여 참가하였으며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도 월드미션인의 정체성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순서를 가졌다. 본교는 해마다 추수감사절 주간에 감사의 마음을 모아 월드미션의 밤을 개최하여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쿰란출판사

본교 설립자 고 임동선 목사 추모 5주기를 맞아 선교설교집 “땅끝까지”가 출간되었다. 이 설교집에는 임동선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선교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다.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선교의 정신과 자세, 그리고 선교현장의 생생한 간증들이 들어 있다.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사님의 놀라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다.

WMU News

사모들을 위한 두번째 온라인 세미나가 2021년 4월 7일(수) 미서부시간 오후 4시부터 Zoom으로 있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사모로서 정체성 찾기와 자존감 높이기'로 강사는 본교 MACP 디렉터인 송경화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학술세미나가 3월 23일 (화) 인터서브코리아 대표 조샘 선교사를 초청하여 '선교와 재난 – 코비드로 다시 보는 대위임령' 이란 주제로 열렸다. Zoom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비드 국면에 따른 선교의 방향 및 패러다임 변화에 관해 다루었다.

2021년 봄학기 Spring Festival이 Zoom에서 각 학과별로 열렸다. 온라인 단합대회 형식으로 모인 이번 Spring Festival을 위해 학교에서 각 학과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학교의 공식 활동이 오랫동안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온라인 학과 모임은 학과별 결속과 친목을 다지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Spring

2021년 봄학기 개강예배가 1월 26일(화) 오후 7시부터 Zoom에 있었다.
이 날 임성진 총장은 시편 51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기독교 사역자로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당부했다. 개강예배 후에 교수 소개와 학과별 학생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WMU Word & Photo

BRIEF HISTORY OF WMU

1989년 3월 27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훈련과 학문 사이에 균형을 이룬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을 설립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가 설립되었다.

1988. 11. 28	세계선교신학대학 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1989. 03. 01	임동선 목사 학장으로 취임하다.
1989. 03. 01	이원희 목사 학감으로 부임하다.
1989. 03. 27	신입생 32명으로 본교 개강,
	Donald A. McGaveran 박사 초청 개교기념 특별강좌를 개최하다.
1991. 03. 18	신학석사(MDiv., M.A.)가주교육국 인가(BPPVE 94310)를 취득하다.
1992. 08. 18	대학학부 인가취득, 학부를 세계선교신학대학으로, 대학원을 세계선교신학대학원으로 하다.
1992. 09. 27	모스크바 세계선교신학원을 개교하다.
1993. 06. 29	종합대학교로 개편,
	명칭을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로 변경하다.
1993. 12.11	총장에 임동선 목사, 부 총장겸 대학원장에 이정근 목사를 선임하다
1999. 03. 25	개교 10주년 기념예배 및 행사를 거행하다.
1999. 07. 01	주정부 완전인가(Full Approval) 취득. 유아교육과, 평신도학과 인가를 받다.
2003. 01. 08	학교건물을 구입하다.
2003. 08. 23	새 교사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다.
2004. 08. 30	원격교육센터를 신설하다.
2005. 01. 24	음악학과(BAM/MAM)를 신설하다
2006. 02. 17	ABHE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자격)을 부여받다.
2006. 06. 26	ATS로부터 Associate Membership Status(준회원자격)을 부여받다.
2008. 02. 20	ABHE, TRACS로부터 일반학과, 상담학과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2008. 06. 07	원격교육과정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하다.
2010. 11. 03	TRACS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자격)을 부여받다.
2010. 11. 06	임성진 학감 수석 부총장으로 임명하다.
2011. 03.25	ABHE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재인가자격)을 부여받다.
2011. 06.25	ATS로부터 Candidate Membership Status(정회원후보자격)을 부여받다.
2012 .06.02	설립자 임동선 박사 초대 총장 이임/ 송정명 박사 2대 총장으로 취임하다.
2012. 08. 20	대학원 상담학과(MACC)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ABHE, TRACS로부터)
2013. 08. 09	ATS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자격)을 부여받다.
2014. 01.13	한인기독교상담소 개설
2014. 04. 15	TRACS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연장)을 부여받다.
2014. 06. 25	ATS로부터 Online Comprehensive 인가를 받다.
2015. 05. 29	기숙사 건물을 구입하다
2015. 06. 16	ATS로부터 목회학석사(MDiv)과정 Residential Exception 인가를 받다.
2016. 02. 02	ATS로부터 상담학석사(MACC)과정 Residential Exception인가를 받다.
2017. 02. 02	ATS로부터 교회음악학박사(DCM)과정 인가를 받다.
	ATS로부터 기독교상담학석사(MACC)과정 OC Extension Site 인가를 받다.
	ABHE로부터 성서학준학사(AABS), 기독교상담학준학사(AACC)과정 인가를 받다.
2018. 06. 02	2대 총장 송정명 박사 이임/ 임성진 박사 3대 총장으로 취임하다.
2018. 06 05	ATS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연장)을 부여받다.
2018. 09.10	ABHE로부터 상담학석사를 MA in Counseling Psychology로 변경승인 받다.
2019. 03. 06	ABHE로부터 간호학학사(RN to BSN) 과정 인가를 받다.
2020. 02.07	ATS로부터 예배학석사(MA in Woship Studies) 과정 인가를 받다.
2020. 06.29	ABHE로부터 BASW (BA in Social Work) 과정 인가를 받다.
2020. 08.18	ATS로부터 MAGL(MA in Global Leadership) 과정 인가를 받다.